

‘파운더스컵만 3번째 우승’ 고진영 “영광...운이 좋았다”



고진영이 14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C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정상에 올라 트로피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진영은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지난해 우승자 이민지(호주)와 동타를 이뤄 연장 끝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시즌 2승, 통산 15승을 기록했다.

LPGA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역전 우승...통산 15승 4위 오른 신인 유해란 “진영 언니 플레이 본받고 싶어”

고진영이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승째를 올리며 한국 여자골프의 자존심을 세웠다. 고진영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이민지(호주)와 동타를 이룬 뒤 1차 연장전에서 우승했다. 올해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이은 시즌 2승이자 LPGA투어 통산 15승이다. 특히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 3번째 정상에 올랐다. 또 2021년 5승 이후 2년 만의 한 시즌 다승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고진영과 김효주, 지은희, 전민

지가 1승씩을 거두는 데 그쳤다. 고진영은 “정말 영광이다. 한 대회에서 두 번도 쉽지 않은데, 오늘 정말 운이 좋게 이겼다”며 “3번째 우승을 해서 기분이 좋고, 월요일 아침에 많은 한국 팬에게 좋은 소식 들려드려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3차례 우승을 모두 다른 코스에서 한 고진영은 “의미가 있다”며 “지난 싱가포르 대회 이후 또 우승하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좋다”고 했다. 고진영의 막판 뒷심이 역전 우승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날 선두에 4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고진영은 마지막 18번 홀 버디로 이민지와 동타를 만든 뒤 연장 첫 홀 승리로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전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대회에서 임성재의 5타 차 역전 우승에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고진영은 “(18번 홀퍼트 감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스피드만 잘 맞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이)민지보다 운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시즌 만에 다승에 성공한 고진영은 “지난해 많이 흔들렸던 스윙을 올해는 견고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라며 “노력하고 있고, 남은 시즌도 더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했다. 올 시즌 최고인 4위로 대회를 마친 신인 유해란은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즌 3번째 톱10에 든 그는 “적응하는 기간에 좋은 모습 보여 아주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고)진영언니의 플레이를 본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시



한국서 우승 기운 받은 임성재, PGA 챔피언십 정조준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대역전극 “메이저대회서 좋은 성적 거두고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임성재(25)가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떠난다. 임성재는 지난 14일 경기도 여주 페넬클럽(파72)에서 열린 KPGA 코리아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우승상금 3억원)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임성재는 약 3년 7개월 만에 출전한 국내 무대에서 두 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잠시 한국에 머물렀던 임성재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15일 저녁 미국으로 떠난다. 임성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대단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공동 4위로 마지막 4라운드를 시작한 임성재는 전반 9개 홀에서 1타를 잃어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후반에 이글 1개를 포함해 대거 5타를 줄여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마지막 18번 홀에서 벅커샷에 이은 버디 퍼트는 현재 임성재의 기량과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성재는 PGA 챔피언십에서 선전을 예고했다. 지난달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메이저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성재는 지난 14일 우승 인터뷰에서 “한국



에 온 지 6일째 됐다.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바로 출국이다. 가자마자 미국에서 이번 주 같은 상황을 겪어야 한다. 미국에서 오후가 되면 피곤할 것 같다”며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 마스터스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만큼 그때처럼 컨디션이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GA 투어에서 최정상급 선수로 가기 위해서는 장타력과 정확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PGA투어 선수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드라이버와 롱 아이언은 다른 선수들에게 뒤진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보다 10야드 정도 비거리가 더 나갔으면 좋겠다. 비거리가 늘어 야 메이저 대회 같은 무대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정확도까지 좋아지면 경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향후 스윙 스피드 트레이닝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성재는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 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 스윙 스피드 트레이닝을 한 적은 없다. 앞으로 세계랭킹을 더 높이려면 스피드 트레이닝도 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나보다 더 좋은 선수가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한국에서 가장 잘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1위에 1승 주고받은 ‘달라진’ 한화 이번엔 2위 롯데·3위 LG와 격돌

5월 팀 평균자책점 1위·타율 3위

‘달라진’ 한화 이글스가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마주한다. 4월까지 6승1무17패(승률 0.261)에 그치며 최하위에 머문 한화는 5월 들어 6승1무3패(승률 0.667)로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월만 놓고 보면 승률 3위에 오를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다. 팀이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밤에는 갑작스레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을 경질하고 최원호 감독을 선임하는 과감한 변화를 택하기도 했다. 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도 한화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화는 12~14일 선두 SSG 랜더스와 1승1무1패로 팽팽히 맞섰다. 이제는 또 다른 강팀을 상대한다. 한화는 16~18일 대전 홈 구장에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를 만난 뒤 19~21일 잠실 원정에서 3위 LG 트윈스와 격돌한다. 롯데와 LG 모두 한화가 이번 시즌 열세를 보인 팀들이다. 4월 롯데에 2패를 당했고, LG에는 1승2패로 밀렸다. 5월의 한화는 팀 평균자책점 1위(2.97), 팀

타율 3위(0.263), 팀 홈런 2위(9개)에 오를 만큼 탄탄한 공수 조화를 선보이고 있다. 감독 교체라는 승부수를 띄운 한화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연거푸 만나는 강팀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가 관전 포인트다. 주말 사직에서는 SSG와 롯데의 뜨거운 만남이 벌어진다. SSG가 KBO리그에 입성한 2021년부터 두 팀은 모기업의 ‘유통 라이벌’ 관계로 눈길을 끌고 있다. SSG와 롯데 구단주들의 ‘장외 경쟁’도 화제를 모을 정도다.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정몽진 SSG 구단주는 평소에도 야구장을 자주 찾은 만큼 야구 사랑이 각별하다. 지난해는 개인 통산 400홈런을 작성한 팀 간판 타자 최정에게 약 1500만원 상당의 스퀴드 메달을 안기기도 했다. 롯데 구단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롯데가 9연승 행진을 벌이자 1군 선수단과 트레이너, 통역, 훈련 보조 요원 등 총 54명에 고급 드라이어나 헤드셋을 선물했다. 올해는 두 팀의 ‘순위 경쟁’까지 이뤄지면서 맞대결도 더욱 불꽃이 될 전망이다. 15일까지 SSG는 1위(23승1무12패 승률 0.657)를 달리고 있고, 롯데는 2위(19승11패 승률 0.633)로 그 뒤를 바짝 쫓는다.

바르셀로나, 4년 만에 라리가 우승...메시 떠난 뒤 처음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리오넬 메시(파리생제르맹)가 떠나고 처음으로 리그 정상에 올랐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는 15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RCDE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스파냐와의 2022-2023시즌 라리가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85(27승4무3패)가 된 바르셀로나는 2위 레알 마드리드(승점 71)와의 승점 차

를 14점으로 벌리며 잔여 4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2018-2019시즌 이후 4년 만의 우승이자, 2021년 8월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으로 메시가 떠난 뒤 첫 라리가 정상이다. 구단 통산 27번째 우승이다. 바르셀로나 레전드 출신으로 2015년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해 알 사드(카타르)를 거쳐 2021년 11월 친정팀 사령탑으로 돌아온 사비 감독은 선수에 이어 지도자로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김시우, PGA AT&T 바이런 넬슨서 아쉬운 준우승 “아쉽지만, 집 근처서 열린 대회 잘 마무리”...제이슨 데이는 5년 만에 우승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5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김시우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에서 열린

PGA투어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기록, 8언더파 63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합계 22언더파 262타가 된 김시우는 제이슨 데이(호주)에 1타 차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 1월 소니오픈 이후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 발발했다. PGA투어 통산 4승을 기록 중인 김시우는 4번째 준우승이다. 김시우는 상금으로 84만5500달러(약 11억 3300만원)를 받았다. 공동 4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시우는 16번 홀(파4)과 18번 홀(파5) 버디로 데이와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하지만 데이도 버디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가지 못했다. 김시우는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기쁘다”며 “집 근처에서 하는 대회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우승을 놓친 김시우는 오는 19일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 나선다. 그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기분으로 메이저를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김시우의 추격을 뿌리친 데이는 2018년 5월 웰스파고 챔피언십 이후 5년 만에 PGA투어 정상에 올랐다. 통산 13승이다. 이 대회에선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우승을 맛봤다. 세계랭킹 2위 스코트 셰플러(미국)는 공동 5위(20언더파 264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2019년 이 대회 챔피언인 강성훈은 안병훈 등과 공동 14위(17언더파 267타)에 자리했다. 2021년, 2022년 연속 우승했던 이경훈은 공동 50위(11언더파 273타)에 그쳤다.